

## 임종의 순간까지 삶의 존엄을 지키는 사람들 - 호스피스 이야기

전효선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죽음 교육 지도사)



똑! 똑! H씨의 아내는 봉사자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와 미소로 눈인사를 했다. 그리고 두 손에 든 호빵을 내려놓은 채 따듯할 때 드시라며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아내는 수개월째 남편의 곁을 지키고 있다. 2022년 12월 항암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컨디션이 점점 나빠졌을 때, 담당 의사로부터 호스피스 전원을 권유받았다. 암 진단 후 1년을 외래와 입, 퇴원을 반복한 지극한 아내의 간병에도 불구하고 H씨의 병세는 회복되지 못했다. 전원 당시 음식을 넘기지도 못했던 남편은 지금은 가벼운 식사가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다. 전원 이후 5개월이 지났고 지극 정성으로 간병하는 아내는 주변도 살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분이다.

지난 4월 초, 결혼 50주년 금혼식을 맞아 축하 미사와 함께 의료진과 가족, 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조촐하지만, 풍성한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지나간 시간 속의 사진들이 영상으로 편집되어 재생될 때 70대 부부의 눈시울이 젖었다. 장성한 자녀들이 정성껏 준비한 축하 케이크에 촛불도 켜고, 큰딸이 직접 그린 한 쌍의 원앙이 노니 그림도 부부의 두 눈에 가득 담겼다. 축하식이 끝나고 가족은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내 쉼터에서 정겨운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간을 보냈다. 통통했던 아내의 얼굴이 지금은 반쪽이 되었지만 미소 담긴 얼굴에 고운 한복 자태는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개

원 이래 첫 금혼식이라 준비하는 손길들도 마냥 분주했지만,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금혼식이었다.

이 풍경은 죽으러 가는 곳의 풍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풍경이다. 축하와 감사가 있고 가족의 사랑이 그려지는 삶의 일상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 이런 이벤트가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신세계를 접하는 느낌이 아닐까. 대부분 호스피스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둡고 슬픈 이미지로 병동을 연상한다. 그동안 매체에서 보이는 임종 과정과 호스피스 병동은 깊은 상실의 이미지로 조명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노부부의 금혼식을 축하하면서 내가 가진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는 아름다웠다'였다. 지금까지 힘이 되고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여정을 살아온 노부부에게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드렸다. 아내는 지난 세월 헤어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친정아버지의 평소 말씀인 "사람은 혼자 살지 않고 서로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를 가슴에 새기고 긴 세월 사람 인' 한 글자만 붙들고 살았다고 했다. 아내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으며 인생 선배의 인고의 세월에 따뜻한 포용과 감사를 드리고 싶었다. 이렇듯 떠나야 하는 사람과 남겨지는 사람 사이에는 이해가 있었고 용서가 있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이고 인간적인 모습인가. 이것이 죽음을 향해가는 자에게 허락된 진정한 존엄의 모습이고 호스피스의 지향志向이다.

사람들에게 호스피스에 대해 물어보면 더 이상 치료가 안 되어 '죽음을 위한 마지막 장소'쯤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호스피스를 기피하는 사람

들도 있다. 이런 반응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호스피스에 대해 바른 생각,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결론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환자 가족과 세상에 호스피스의 진면목을 전달하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병동에서 환자와 함께 돌봄을 받았던 가족은 누구보다 훌륭한 호스피스 전도자가 될 것이라는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은평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 만 4년이 되어간다. 처음 호스피스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환자의 죽음을 위한 마지막 ‘장소’라고 생각했다. 나 또한 일반적 생각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되었다. 호스피스는 임종기의 환자가 죽음을 위해서 머무는 곳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마지막 성장과 남겨진 자들을 성장시키는 삶의 장소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호스피스 병동 여러 곳을 전원하며 8개월 동안 홀로 80대 노모의 곁을 지킨 40대 후반의 외동딸이 있었다. 이 딸의 간병은 간호사들도 감탄할 정도로 굉장히 세심했고 봉사자의 손길이 거의 필요치 않을 정도로 바지런하였다. 마지막 임종 때까지 엄마의 몸에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딸의 간병 목표였으니 체위변경을 위한 알람은 당연했다. 가끔 신부님과 수녀님을 통해 영적 상담을 받았지만, 마음의 준비를 위해 딸에게 서른여섯 젊은 의사의 마지막 순간을 다룬 <숨결이 바람 될 때>를 던지시 권유했다. 며칠 후 내게 책을 읽은 소감을 이렇게 보내왔다. “마지막 책장을 덮으며 다가온 선명한 깨달음은 ‘엄마가 힘들게 삶을 붙잡고 계신 것은 내가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엄마의 마지막 사랑을 기억하며 살다가, 언젠가 나도 엄마가 가신 길을 갈 때, 좋은 추억 가슴에 안고 가도록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엄마!

엄마가 계시는 세상 끝 날까지 나는! 엄마 곁에서 함께 할게요. 엄마의 고생으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어요. 엄마, 고맙고 사랑합니다.”

삶의 마지막 종착지인 죽음과 죽어감의 현장에서 절대적 소망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세상과 이별하는 이들 뒤에 이처럼 남겨진 가족이 있다. 가족은 슬픔 가운데 고인의 삶을 그리워하며 추억한다. 그리고 고인을 떠나보내며 고인의 삶이 잘 마무리되었는지도 돌아보게 된다. 임종과정 가운데 엄마는 딸에게 한 줄기 삶의 빛을 비추고자 했고, 딸은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수용했다. 얼마 후 노모는 가족과 마지막 만남 뒤 평안히 임종하셨고 장례도 모든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잘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호스피스는 이처럼 죽음을 맞이하고 보내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다. 대중에 회자되는 웰 다이잉 Well-dying이 말하는 존엄한 마무리는 멀리 있지 않다. 마지막까지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것이다. 특히 화해와 용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존중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마지막 성장을 위한 좋은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제 호스피스는 내게 더 이상 무거운 주제가 아니다. 삶과 죽음은 항상 우리 안에 있고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죽음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호스피스는 떠나는 이들에게서 삶의 소중함을 배우고 죽음이 주는 지혜를 배우는 최고의 공간임을 확신한다. 호스피스에서 돌봄을 받았던 가족들은 “호스피스가 이런 곳인 줄 몰랐다. 진작 알았다면 미루지 않았다.”라고 때늦음을 후회했다. 올바른 정보를 몰라 때늦은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체계적인 홍보가 제때 이루어져 호스피스의 자리가 온전히 세워지길 희망한다. 그리고 매주 봉사의 기쁨과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가는 호스피스와의 인연에 깊이 감사하며, 부족한 저의 손길을 이끌어 오늘에 이르도록 도움 주신 은평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사랑합니다!!